

진료실에서 노동을 복원하는 일

박민영 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진료실에서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의 업무관련성평가를 하고 있다. 허리 추간판탈출증이나, 어깨 회전근개 질환처럼 일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진찰하고, 노동자가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래, 어떤 강도로 해왔는지를 살펴 질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평가한다.

진료하다 보면 신체를 진찰하거나 영상 검사를 확인하는 것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는 일이 있다. 한 사람이 지나온 노동의 시간을 다시 맞춰보는 일이다.

“이 일은 몇 년 정도 하셨어요?”

“한 25년 했죠.”

그런데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자료를 확인해 보면 10년 남짓한 직력만 나타날 때가 있다. 다시 여쭙보면 그제야 빠져 있던 이야기가 이어진다.

“하루 일하고 돈을 봉투로 받던 때도 많았죠.”

오래전 건설 현장에서 했던 일용노동이나 영세사업장에서 일했던 경력들이다. 이미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행정자료만으로 과거의 직업력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우리는 흔히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자격자료, 소득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직업력을 ‘객관적인 직력’으로 받아들인다. 실제로 이러한 자료는 기억에 의존하는 직업력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여러 노동자를 진료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이 생긴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노동은 객관적인데, 기록되지 않은 노동은 그렇지 않은 것일까.

기록이 없다는 것이 곧 일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고 수십 년 전의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는 모든 직업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역시 정확한 평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행정자료와 노동자의 진술, 사업장 자료 등을 서로 맞춰가며 그 사람이 지나온

노동의 시간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복원하게 된다.

기록이 없다는 것이 일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직업력을 확인하고 나면 또 다른 질문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그 일을 어떤 강도로 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 일을 하실 때 무거운 물건은 얼마나 들었나요? 몇 kg 정도였을까요? 하루에 몇 번 정도 드셨어요?”

어떤 작업은 비교적 설명하기 쉽다. 일정한 무게의 제품을 정해진 공정에서 반복해서 옮겼다면 중량과 횟수, 작업시간을 중심으로 업무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노동이 그렇게 몇 가지 단위작업으로 깔끔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다. 요양보호사의 일을 물어볼 때면 이런 어려움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어르신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들어서 옮기셨어요?”

요양보호사의 하루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화장실까지 부축하고, 휠체어로 옮기고, 목욕을 돕고, 옷을 갈아입히는 수많은 동작으로 이어진다. 돌보는 사람에 따라 스스로 몸을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온몸의 무게를 받아내야 하기도 한다. 동료와 함께 환자를 옮길 때도 있지만 혼자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갑자기 힘이 풀리는 사람을 붙잡느라 예상하지 못한 자세에서 순간적으로 큰 힘을 쓰는 일도 생긴다. 물건의 무게는 저울로 잴 수 있지만, 사람을 돌보는 노동의 무게는 그렇게 단순하게 숫자로 옮겨지지 않는다.

식당에서 일한 노동자를 진료할 때도 비슷하다. ‘식당 종업원’이라는 하나의 직업명 아래에서도 누군가는 주로 홀에서 서빙하고, 누군가는 종일 재료를 손질하고 설거지하고, 식자재와 큰 그릇까지 옮긴다. 같은 사람의 하루 안에서도 점심시간 두세 시간 동안 작업이 집중되었다가 이후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하기도 한다. 이런 노동을 몇 kg의 물건을 몇 회 들었는지와 같은 몇 개의 숫자만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몸에 남은 노동의 흔적 들여다보기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려면 반복 동작의 빈도와 힘의 크기, 부적절한 자세를 취한 시간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문제는 진료실에서 만나는 사람은 현재의 노동자인 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과거의 노동이라는 점이다.



▲ 물건의 무게는 저울로 잴 수 있지만, 사람을 돌보는 노동의 무게는 그렇게 단순하게 숫자로 옮겨지지 않는다. 출처 : Visual Hub

물론 작업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만 노동자가 거쳐온 모든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미 폐업한 곳도 적지 않다. 같은 사업장이 남아 있더라도 자동화나 공정 변경을 거치면서 과거의 작업방식이 사라진 경우도 많아, 현재의 작업현장을 본다고 해서 20년 전의 노동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진료실에서는 노동자의 설명을 듣고, 남아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때로는 사진과 작업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했던 일을 다시 구성하게 된다.

과거의 노동을 복원하기 어려운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다. 한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일해 고용기록과 공정자료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 영세사업장과 일용직을 옮겨 다닌 자신의 직력을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노동자도 있다. 하는 일을 몇 가지 단위작업으로 비교적 명료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돌봄이나 서비스 노동처럼 하루의 일이 수많은 작은 행동으로 뒤섞여 있어 그 강도를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노동자들은 모두 자신의 과거 노동을 설명해야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 노동을 증명하는 일이 똑같이 쉬운 것은 아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면 몇 장의 행정자료와 진료기록, 그리고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가 남는다.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며 가능한 한 실체에 가까운 노동의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있었던 노동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몸에는 남아 있지만 서류에는 남지 않은 시간도 있고, 숫자로 쉽게 표현되지 않는 노동의 무게도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과거 노동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서류에 남은 시간뿐 아니라 몸에 남은 노동의 흔적까지 함께 들여다보아야, 그 사람이 지나온 노동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터